

광주시,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 전격 철회 왜?

승산없는 싸움 대신 '실리'

중 참여로 사실상 유치 불가...체육회와 협의 '하계U대회' 새 카드

광주시가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국익을 우선시 하면서도 유치 가능성 및 파급 효과 등을 저울질 한 '실리'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대만·괌·일본과 손을 잡더라도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놓고 한국이 중국과 경합을 벌일 경우, 오는 7월로 예정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 때 강원도 평창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됐다.

광주 입장에서는 명분을 최대한 살려 동아시아대회를 철회한 대신 부가가치가 더 큰 대형 행사를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동아시아대회는 10개국 3천600명의 선수단이 7일간 대회를 치르지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175개국 1만2천명의 선수단이 10일간 머무른다.

■ '세계박람회 유치 사절단' 유럽 홍보 마치고 귀국

“터키 ‘여수지지’로 선회 지지국 갈수록 늘어”

지난달 동유럽과 터키를 방문했던 '2012 여수박람회 유치 합동사절단'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오현섭 여수시장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유럽과 터키 방문을 통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정부와 국회의 지원, 여수시의 완벽한 준비 등을 해당 국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설명했다”면서 “강력한 민간기업의 지원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2년 여수박람회를 지지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지로 돌아선 것을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여수와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경쟁국이 이슬람권인 모로코의 탕헤르이기 때문이다. 오현섭 여수시장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유럽과 터키 방문을 통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정부와 국회의 지원, 여수시의 완벽한 준비 등을 해당 국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설명했다”면서 “강력한 민간기업의 지원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2년 여수박람회를 지지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오현섭 여수시장 등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합동사절단이 지난 달 23일부터 체코 등지에서 유치활동을 벌였다.

“도로 민주당은 왜 안되는가”

김영진·이상열 민주시·도당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이상열 위원장〉

민주당 이상열 전남도당위원장은 “기득권과 밥그릇 쟁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민주당 중심의 ‘도로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당에서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50년 전통의 민주당은 현정사상 처음 수평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정당이며, 전국 조직과 특정지역의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과정에서 통합신당의 명칭을 놓고 노출된 견해 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홍일 후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와 관련, “당 차원의 공조와 후보 연대, 연합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 남구 시의원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열린우리당 후보 지지에 대해 윤리위를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현저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당으로써 책임을 뉘꼈다”고 말했다.

정부, 17일 열차시험운행 관련

군사실무회담 대표 접촉 제의

정부는 이날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지난달 30일 “5월 3일 오전 10시 관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오늘 오전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2월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이후 약 7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 문 팀장은 북한의 반응 및 회담 전망에 대해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장애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어도 5월 3일 이전에는 답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국 모로코 BIE 현지 실사 시작

우리나라와 함께 2012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로코에 대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현지 실사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5일간 실시되는 이번 모로코 실사는 한국 실사 때와 마찬가지로 7명의 실사단이 모로코 정부와 유치 후보도시인 탕헤르를 방문, 박람회 주제 및 개최 역량 등을 BIE에서 요구한 14개 사항에 대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모로코 실사단원 7명 중 한국 실사에 참

석했던 가르맹 실명 BIE집행위원장과 빈센트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어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지 주목된다. 3개 경쟁국 가운데 지난달 9~13일 가장 먼저 실사를 받은 우리 정부는 이번 모로코 실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2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 관계자 등 3명이 실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로코 현지로 급파됐다. 한편 또다른 개최 후보지 폴란드에 대한 실사는 5월 14일부터 5일간 실시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강동열 사장의 성공신화



이종태 경제부 차장

‘기술경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기술경영은 곧 기술 없이는 경쟁력도 없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얘기다.

회사 설립 6년여만에 100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한 순천의 제이엘크린위터의 성공신화도 기술에서 시작한다. 이 회사 강동열(44) 사장은 공고를 졸업한 뒤 잠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업소용 주방기구 제조회사를 차렸다. 그러나 IMF 유탄을 맞고 이내 문을 닫는다. 어릴 적부터 유달리 손재주가 뛰어났던 강 사장은 2000년 제이엘크린위터를 설립한데 이어 2년 후 원통형 및 웨이브형 물탱크를 만들어 ‘빅히트’를 쳤다. 이 제품은 산업자원부로부터 NEP(우수제품)로 인증받았다. 이어 ‘정수처리시스템을 갖춘 기능성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도 강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강 사장이 아니었다. 이왕 사업에 뛰어들어 이상 최고가 되자고 마음먹은 강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3명의 석박사 인력을 연구진으로 확보했다. 기술에 대한 강 사장의 집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들과 낮에는 실용하고, 밤에는 책에 매달린 강 사장은 또하나의 ‘대박’을 터트린다. 시군 단위의 200~300개에 달하는 간이상수도용 컴퓨터 하나로 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탱크내의 수량, 소독 유류, 탁도, 염소소독 등을 컴퓨터를 통해 간단히 점검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절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도 해마다 쌓여갔다. 지난해까지 특허출원 26건, 의장등록 3건, 실용신안등록 23건 등 52건을 확보해놓고 있다. 매출도 2000년 1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117억원으로, 다시 올해에는 150억원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학에 입학, 만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강 사장의 ‘유쾌한 기술헌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미 올해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을 지난해 매출의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4명의 연구진을 보완한 상태다. 축산분야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물탱크와 소수력 발전기를 이용한 가로등 전력 만들기 등 강 사장이 노리고 있는 ‘막대한’은 수도룩하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갖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문전자금조차 대가로 버겁다며 기술투자를 외면하는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평균 R&D 투자비중이 매출의 5% 미만임을 생각할 때 강 사장의 ‘기술경영’은 한번쯤 되새겨볼 만하다. /jtl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attery Doctor (배터리닥터) featuring a forklift and text about battery performance and maintenance services.

Advertisement for Modish Gallery (모디쉬갤러리) featuring furniture and an 'Open Sale' event with various discounts and product images.